

ITALIA FLOS  
LIGHTING DESIGN  
WORKSHOP

유진 이 | 삼성전자 | Lighting Blossom



CONCEPT

Lighting Blossom

'꽃처럼 피어나는 빛'을 모티브로 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Smart & Emotion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디지털 제품들로 포화상태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감성적 요소 또한 배제시켜 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이에 이번 조명 디자인은 제품과 사용자 사이에 Smart & Emotion이 공존하는 Interactive Control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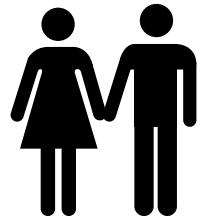
Dig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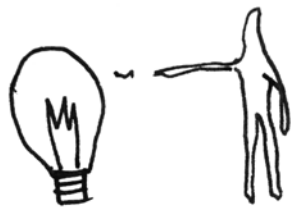
Physical



Physical effects  
pitch & rhythm



emotional reaction btw people  
Catalyst which evoke our emotions...  
Leading mood to be changed



INTERACTION  
BTW OBJECT & HUMAN BEING.

### CONTEXT

빛은 규칙적인 반복과 리듬을 가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힘이 '제품, 조명 그 자체와 사용자 사이에 어떠한 감정과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CONTROL LIGHTING.

DIGITAL → PHYSICAL



O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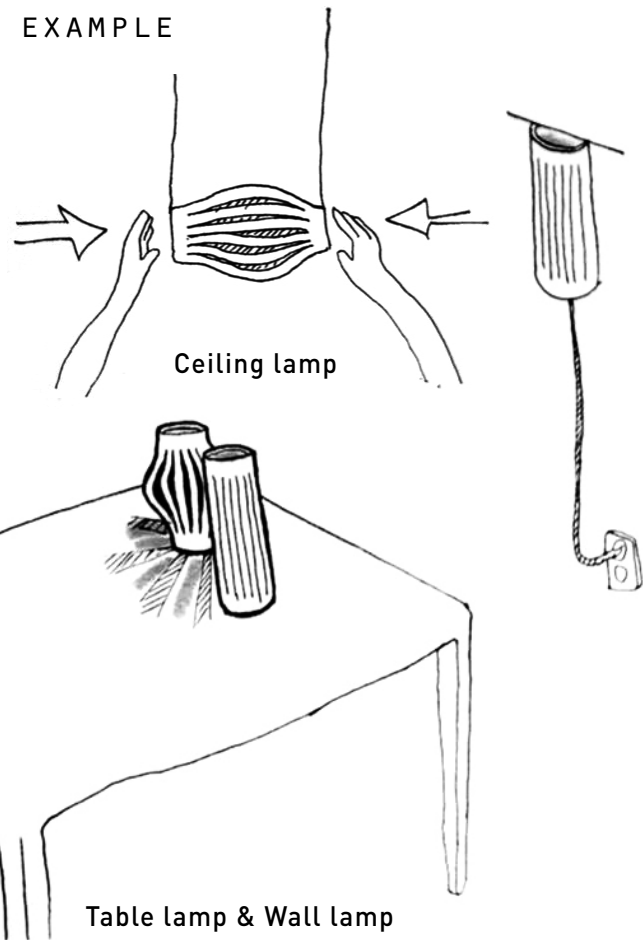


physical distance  
nesting

### IDEA SKETCH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진 조명의 표면이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고 그 틈으로 스며 나오는 빛은 은은하게 공간을 비춘다. 더 많은 빛을 원한다면 사용자는 조명 상단 부분을 누르면서 절단된 면의 공간을 확장시키면 더 많은 빛을 노출할 수 있다.

APPLICATION  
EXAMPLE



MAKE PROCESS

1개의 LED 소자와 폼 보드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교수님과 멤버 간의 Ideation을 통해 종이만을 이용한 Flexible Structure를 구현했다. 은은한 빛의 발산을 위해 Cone 모양의 반사판을 제작하여 빛의 패턴을 구현하도록 했다.



이번 워크숍은 혼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소중한 기회였다. 제품 디자이너로 8년째 일해오면서 많은 아이템을 다루어 보았지만 조명 디자인을 통해 빛의 놀라운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게 해준 교수님들과 함께한 멤버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다.



## CONCEPT

### Moonlight

'달빛'을 모티브로 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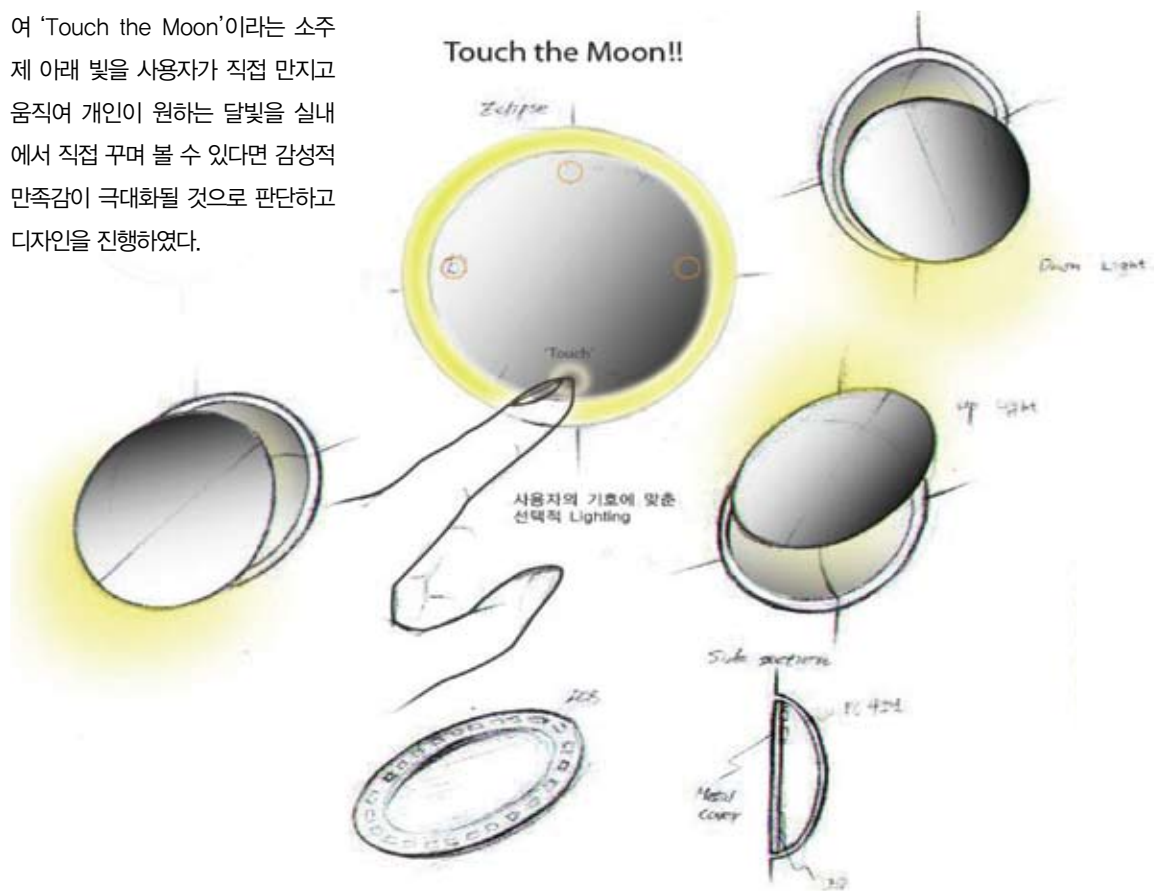
### 따뜻하고 편안한, 달빛

어릴 적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의 달을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렸던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달은 편안하고 따뜻한, 특별한 빛이다. 나의 기억 속의 달빛을 담아보고 싶었으며, 달빛을 곁에 두고 느낄 수 있다면 사용자들에게 가장 이로운 빛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 IDEA SKETCH

달빛의 감성적인 이미지에 집중하여 'Touch the Moon'이라는 소주제 아래 빛을 사용자가 직접 만지고 움직여 개인이 원하는 달빛을 실내에서 직접 꾸며 볼 수 있다면 감성적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 VISUALIZATION

전체적인 형상은 유선형의 바둑알과 같은 형태로 감성적인 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사용자가 설치 후 원하는 방향으로 Touch 하여 반대편의 Diffuser로 은은한 달빛을 느껴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Eclipse의 경우 낮이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Cap과 Body 사이의 공간을 사용하여 마치 월식의 달 이미지를 이용하여 조형적인 느낌의 무드 램프로 사용할 수 있다.





### MAKE PROCESS

달빛의 은은함을 표현하기 위해선 LED 빛의 부드러운 퍼짐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원뿔 모양의 반사판을 제작하여 뒷면에서 빛이 최대한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좌, 우 방향으로 Reflector를 손으로 터치하였을 때도 빛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제약된 시간과 도구는 오히려 빛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한 동기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조명이 아닌 빛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건축과 소재, 컬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성이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보고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더 다양한 체험과 깊이 있는 지식의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큰 가치를 향해 한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CONCEPT **Peb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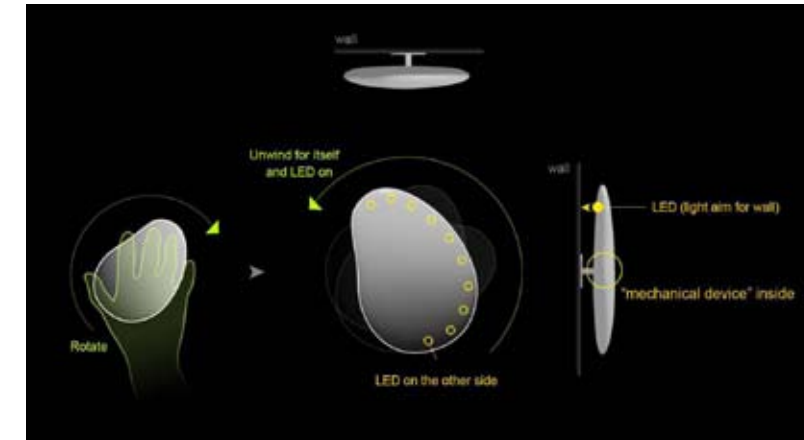
'조약돌'을 모티브로 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아이를 달래는 어둠 속 작은 빛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아이는 불안과 공포를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부모 대부분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안아주고 창 밖의 빛을 아이에게 보여줄 것이다. 만약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라면 어떤 빛이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감성적인 빛일까? 이 디자인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 DESIGN MOTIVE

부모와 아이를 정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빛을 만들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가 해변에서 조약돌을 만지며 정서적으로 교류했던 추억을 제품에 담고자 했다. 부모와 아이는 조약돌을 만지듯 제품을 직접 조작해 빛을 조절하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IDEA SKETCH

제품의 형태는 조약돌 형태를 모티브로 전개하였다. 또한 시계태엽과 같은 메커니컬 장치를 디바이스 안에 내장하여 사용자가 태엽을 감듯 제품을 돌리면 장치가 풀리는 힘을 이용하여 LED가 빛나는 원리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적은 에너지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장치의 활용으로 LED의 점등을 위한 외부 전력이 필요 없다.



## VISUALIZATION

빛의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LED를 제품의 뒷면에 적용하여 마치 조약돌의 표면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발광 효과를 표현하였다.





## MAKE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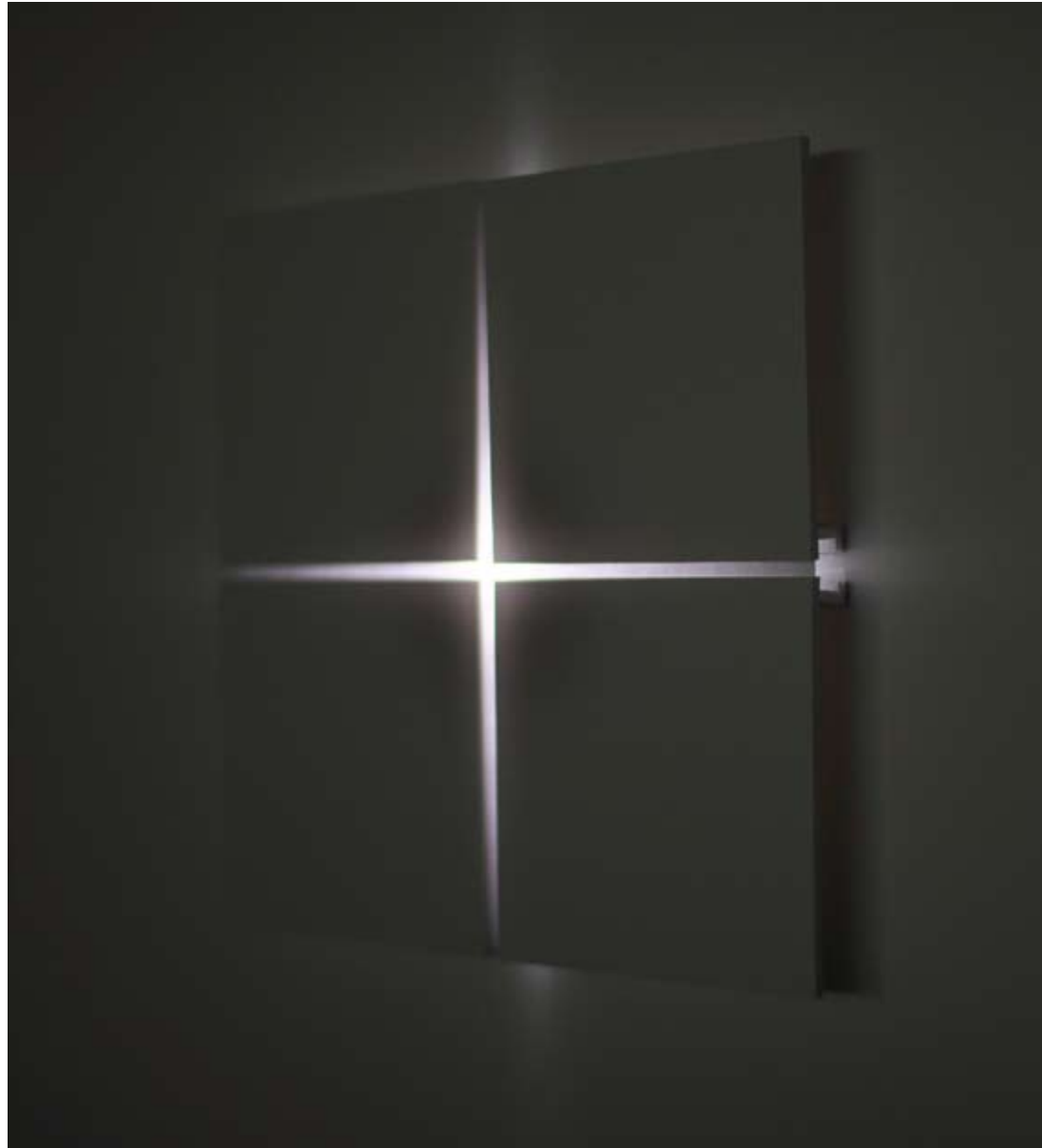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국내 워크숍 때 구상했던 디자인의 형태를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기존 콘셉트만 살려 LED 광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형태를 수정하였다. 흰색의 폼보드는 빛이 투과할 때 확산하는 성질이 있으며 빛을 반사하는 성질도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폼보드를 여러 겹으로 겹쳐 빛의 확산과 반사가 중첩되게 하여 효율적인 빛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Mock-Up을 만들어가면서 표면에 패턴을 적용시켜 빛의 모양이 지루해 보이지 않도록 재미를 주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FLOS 워크숍은 빛과 소재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국내 실무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세계수준의 조명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TALIA FLOS  
LIGHTING DESIGN  
WORKSHOP

이진영 | 아이클루디자인 | Luce Crack



CONCEPT



Luce C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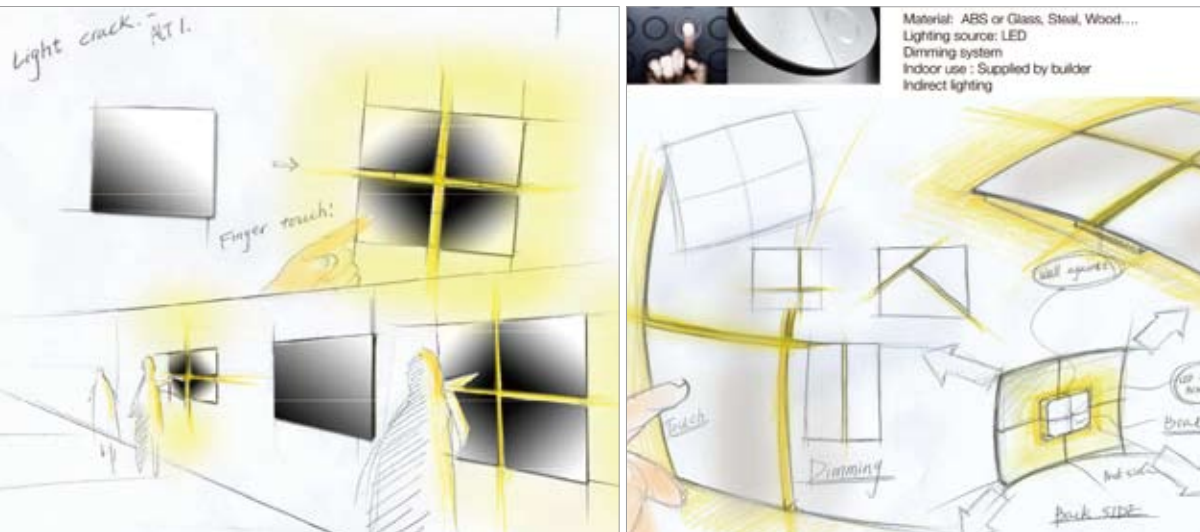
'Luce Crack'(빛 틈)을 모티브로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벽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조명 모듈

어둡고 막힌 공간에서 새어 나오는 한 줄기 빛의 흐름에서 얻은 극적인 느낌을 벽 조명에 적용하고자 했다. 빛을 내어주는 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벽 조명과 사람, 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빛 틈'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무미건조한 벽에 사용자가 쉽게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모듈형 조명을 개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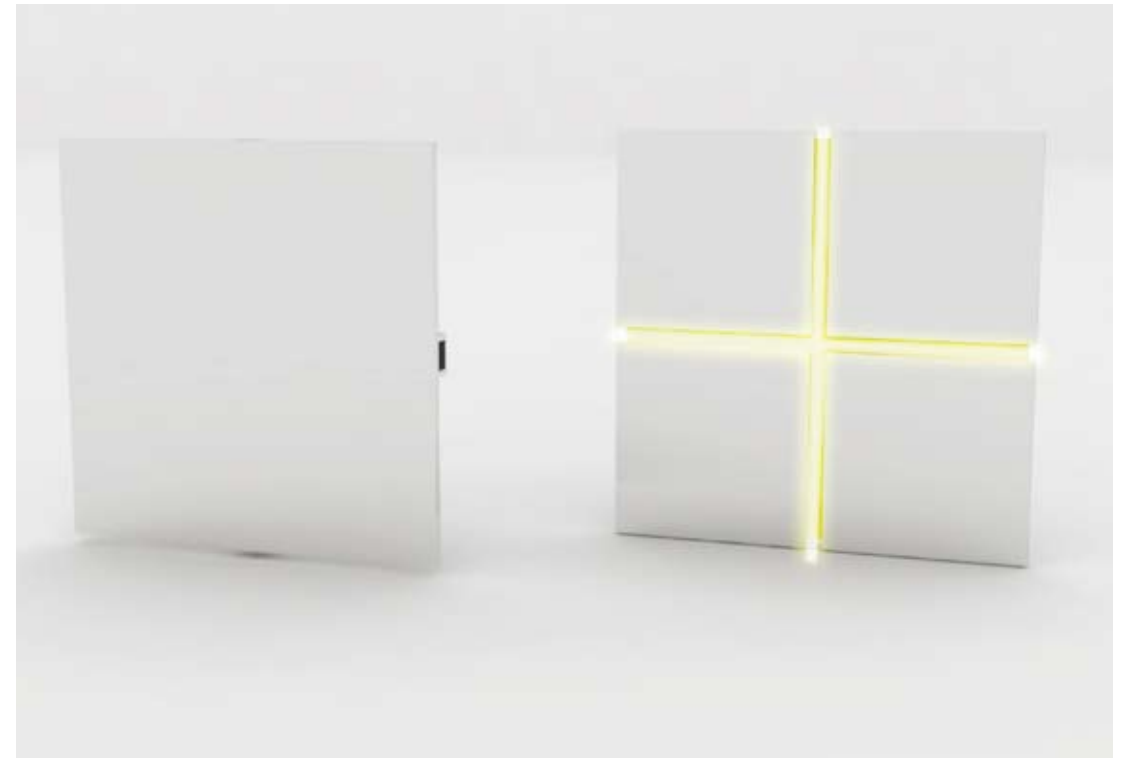
## IDEA SKETCH

사용자와 벽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과 LED 소재의 특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양산을 고려한 소재 적용과 기술에 대한 리서치를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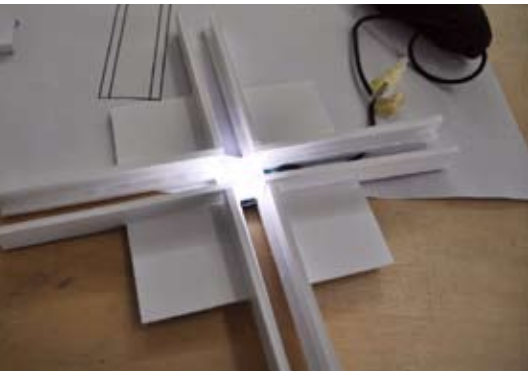


## VISU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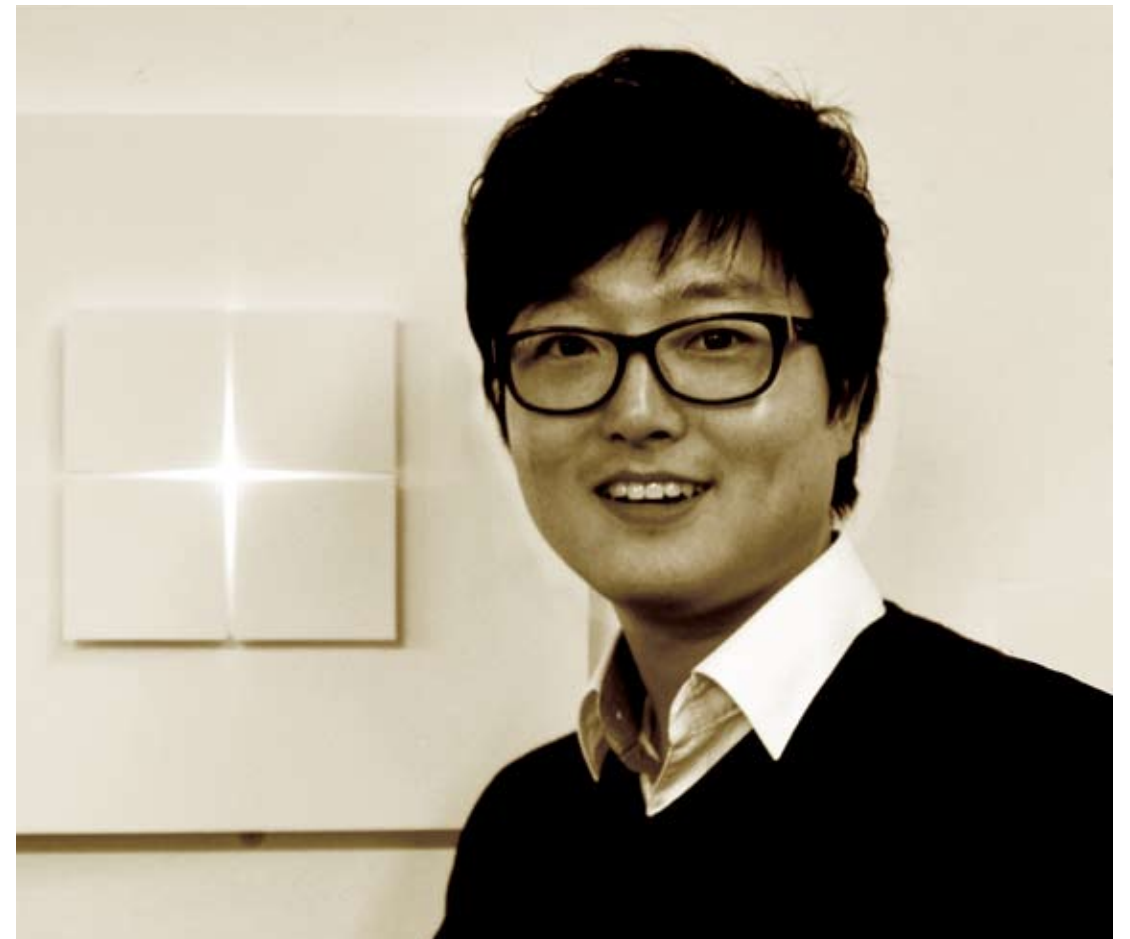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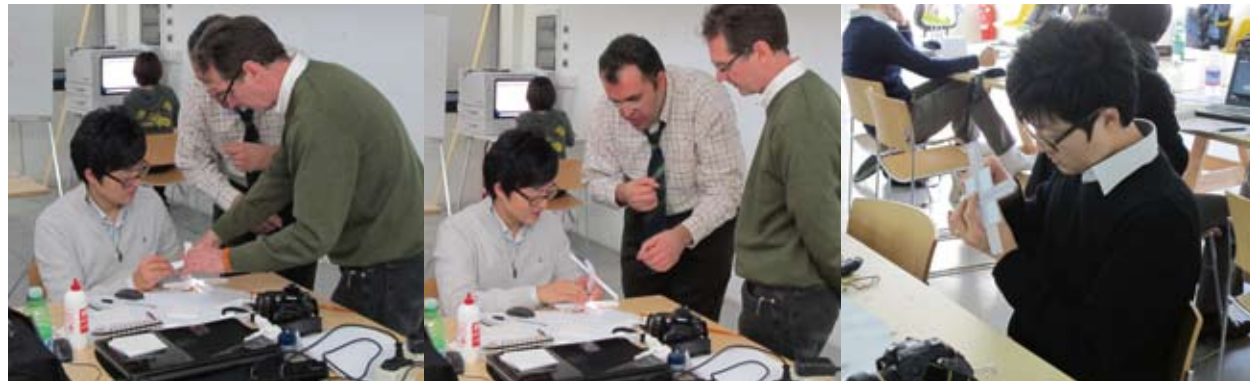
벽과 가장 일체화될 수 있는 평판형 구조로 손을 대면 센서에 의해 빛 틈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며, 모듈화되어 있어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하다.



## MAKE PROCESS



폼보드와 LED 광원 1개로 조명을 제작해야 했다. 이로 인해 당연한 문제점은 빛이 4방향으로 고르게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과 LED 광원을 정면에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직접광에 대한 대처방안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빛 반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이를 이용한 반사판을 제작하여 직접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빛 터널을 이용해 빛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였다.



이번 FLOS 조명 디자인 워크숍은 선진사례를 체험하며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본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는 지속적인 발전과 수정 보완을 거칠 것이다. 이후에도 이탈리아 FLOS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제품화하도록 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의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 CONCEPT

### Hang the luck(BOK)

'복을 걸다', '복을 나누다'를 모티브로 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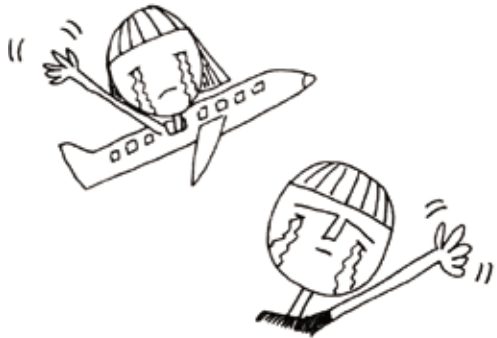


###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표현하는 조명

어렸을 때 우리 집 벽 장식은 오직 복조리 하나였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하여 복조리를 걸어둔 집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복조리 위에 복과 행복을 소복이 담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복을 담고,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조명에 적용해보고자 했다.

## IDEA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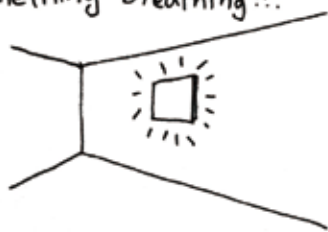
### ① Wife's long business trip.



### ② Lonely way to home without wife.



### ③ Dark home... But!!! Something brea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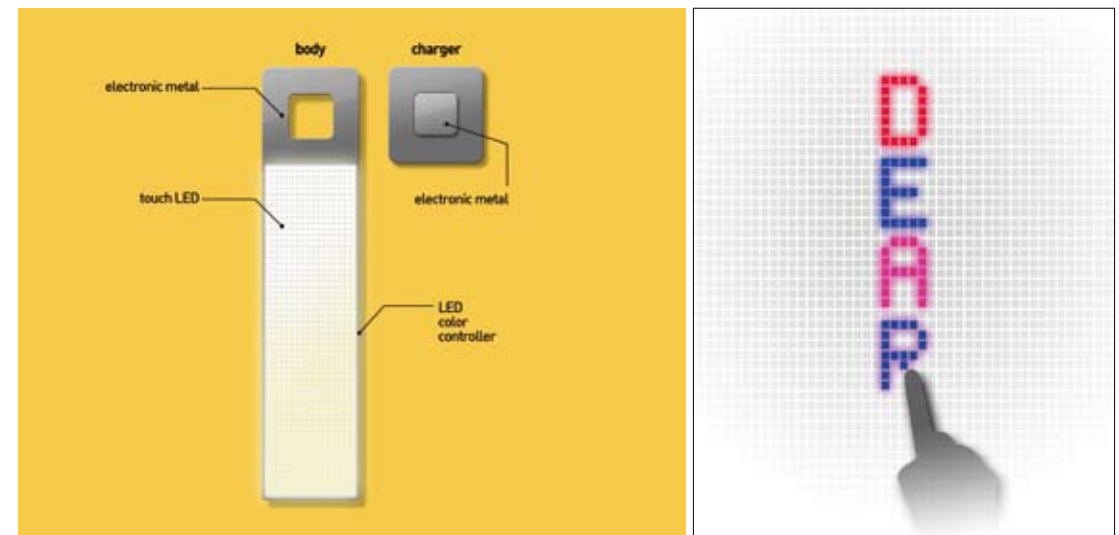
### ④ Message from a wife in Milan. what a warm wall!



국내 워크숍 진행 시에는 얇으면서 세로로 긴 형태의 디자인으로 스케치를 진행하였으나, 이탈리아 현지에서 Soft Mock-up 진행 시 소재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작게 진행해야 했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정육면체로 형태를 변경하고 모서리를 더 둥글게 하여 부드러움을 강조하였으며, LED 광원이 은은하게 비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며 스케치를 변경해 진행했다.

## VISUALIZATION

벽에 걸려 있는 Wall Lamp를 통해(Hang the 'Bok') 가족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Share the 'Bok') 디자인의 메인 콘셉트였고, 주어진 재료의 제약으로 인해 형태는 변경되었지만, 가족 간 사랑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LED의 표면을 터치했을 때, 그 압력으로 메시지가 써지는 기존 방식 대신 메시지가 적혀 있는 슬라이드 필름을 슬롯에 끼워 빛의 음영을 통해 메시지가 조명에 드러나도록 표현했다.



## MAKE PROCESS

심플한 디자인을 위해 정면에서는 빛의 음영을 통한 메시지만 보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면에는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올 수 있는 종이, 종이를 고정하는 얇은 폼보드 틀만 두었고, 나머지는 모두 뒤쪽으로 두어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했다. 종이를 통해 보여지는 메시지는 슬라이드 필름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였고, 육각형 위쪽으로는 슬라이드 필름을 끼울 수 있는 슬롯을 파서 메시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7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7개월 혹은 7년 동안 보고 느껴야 할 것들과 비등한 양을 흡수하고 온 느낌이 든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5년을 넘게 근무해 온 나로서는 Mock-Up 제작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틀 안에 고정되어 있던 사고가 깨어지고 지식이 확장되었다고 생각한다.

ITALIA FLOS  
LIGHTING DESIGN  
WORKSHOP

이혜은 | HUEL DESIGN | Light Through



CONCEPT

Light Through

'새어 나오는 빛'을 모티브로 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조명

'빛이 새어 나오다'라는 콘셉트로 표현한 작품으로, Wall Light 조명이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디자인하였다. 작은 빛이 걸러지며 보는 이에게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조명 자체의 디자인 또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DESIGN MOTIVE

우리에게는 알곡을 고르는 촘촘한 짜임새를 가진 '키'라는 생활도구가 있다. 전통적인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되기에 이러한 짜임은 매우 매력적인 소재였다. 또한, '키'는 벽에 걸어놓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풍요를 상징하는 복으로 여겨지는 의미도 있었기에 이를 디자인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다.

## SET THE LIGHT



Fiori santi, Sumpango, Guatemala, Flor Garduño, 1989

이 조명은 빛의 명암대비 효과를 통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는 벽등 자체만으로 진출과 후퇴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점등 전에는 볼 수 없는 다른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벽과 천정까지 이어지는 빛으로 행복의 빛이 완성됨을 표현하고자 한다.



FLOS 'Giovì', Achille Castiglioni, 1982

### EXAMPLE IMAGE

빛의 투과성과 짜임새를 고려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주간에는 하나의 장식적 소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하나의 소재가 빛의 투과율의 차이로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명이 된다.



FLOS 'CHASEN', Patricia Urquiola,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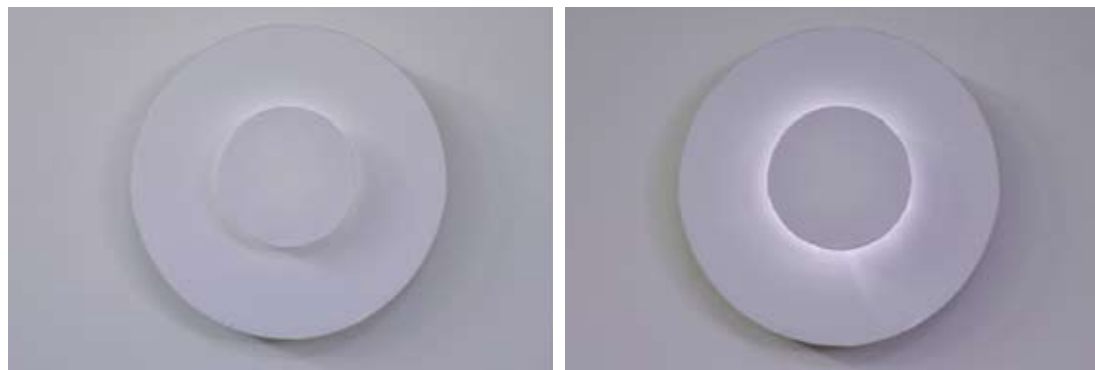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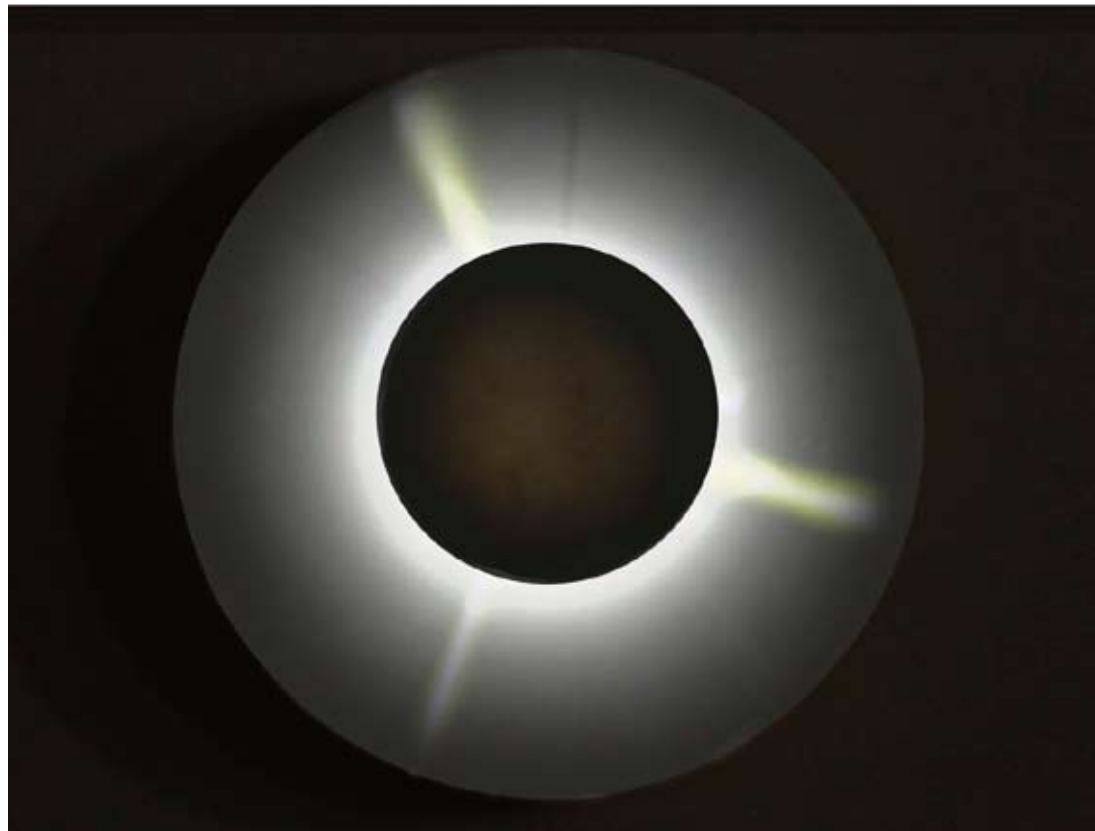


### MAKE PROCESS

제작한 Wall Lamp 디자인의 특징은 한 면을 짜임새 있는 형태로 구성해 면의 입체감을 형성하고 빛의 투과율에 따른 명암대비 효과로 조명의 점등, 소등 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관리가 편리한 기능적 특징도 갖고 있다.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 제품은 크기 및 약간의 형태 수정으로 스탠드 및 실링 등으로 변형이 용이하다. 또한 시리즈 디자인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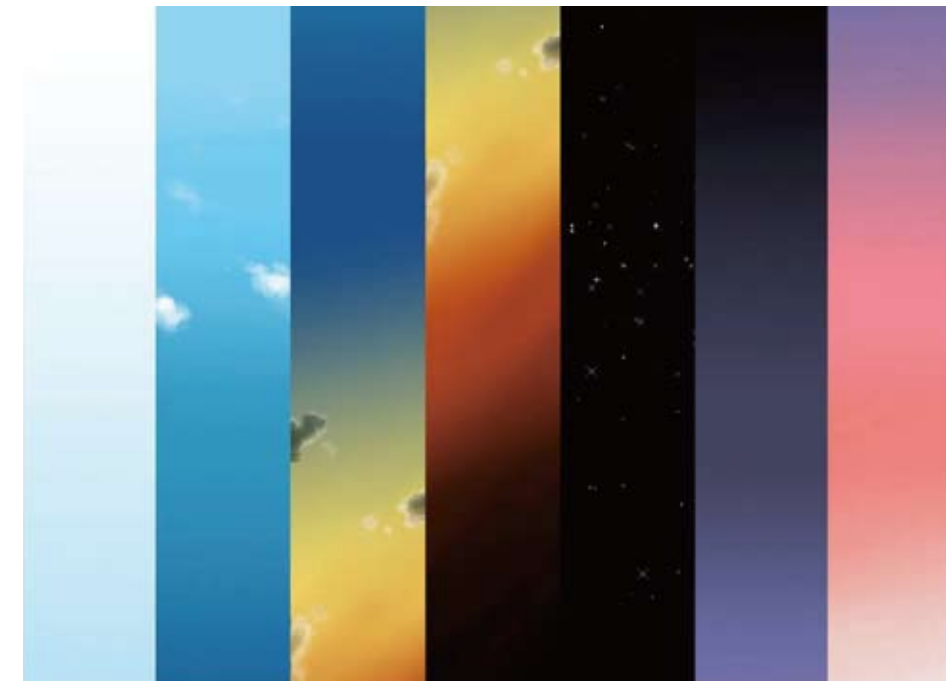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 및 콘셉트의 발전·전개 과정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 중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며 디자이너들과의 소통이 주는 장점을 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워크숍의 결과물이 추후 국내에서 전시·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CONCEPT

AURORA

'오로라'를 모티브로 한 저전력 LED Wall Lamp 디자인



신비한 하늘의 빛깔, 오로라

디자인에 앞서 하늘이라는 콘셉트를 잡고 하늘에서 오는 수많은 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하늘의 색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은 점점 잊혀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빛과 색을 만들어내는 하늘을 떠올리며 기억 속의 하늘색을 찾아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하늘색을 만들고 싶었다.

## IDEA SKETCH

국내 워크숍에서 준비했던 디자인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하늘의 빛을 콘셉트로 한 SKY BALL의 원형을 기초 조형으로 유지하며, 제한사항이었던 폼보드와 A4용지를 이용해 볼륨보다는 정직한 형태의 모습으로 정리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



## VISUALIZATION





## MAKE PROCESS

1개의 LED를 사용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하늘의 색이라는 콘셉트를 유지하기 위해 오로라로 콘셉트를 전환해 다시 정리하였다. 빛을 반사, 확산시키는 리플렉터를 LED 앞쪽에 고정시켜 정형화된 빛을 만들기보다 오로라처럼 자유롭게 빛을 확산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숍을 끝내고 조명 디자인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FLOS에서 배웠던 조명 디자인도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았지만 함께 다녀왔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은 기억으로 크게 남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철학과 프로세스를 배우고 돌아와 디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POSTSCRIPT & OPINION

• 워크숍 이후의 사후관리 차원으로 지속적인 모임 주선과 전시회 및 사례집 발간, 언론홍보 등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국내에서는 접해 보지 못한 해외 디자인 프로세스나 유명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업무 생각으로 가득한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 디자이너로서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해외 디자인 워크숍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실무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또 다른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된 점 또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국내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다른 유럽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접해 보고 국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협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과정을 본 업무에 적용해 볼 생각이다.

• 실무관련 특강 및 해외 선진업체 견학을 통한 양질의 디자인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트렌드는 글이 아닌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비록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문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다.

• 참가자 모두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고, 여러 강사의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실습에 참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워크숍에 참가했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간다면 국내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낯선 장소와 공간에서 다른 시각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본질적 소양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WALL LAMP DESIGN LOW CONSUMPTION

## WORKSHOP SCHEDULE

2011. 01. 15(토)	인천 → 밀라노	2011. 01. 19(수) – 3일차	Lighting Design Workshop / Ventura Area 답사 09:00 – 12:00 Lighting Design Workshop 14:00 – 18:00 Ventura Design Area 답사 (Abitare, Comtemporary Art Galleries 외)
2011. 01. 16(일)	이태리 디자인 리서치 : 이태리 디자인 역사 / 경향 / 주요 작품 조사 트리엔날레 / 디자인 조명 샵 (Artemide, Luceplan 외)	2011. 01. 20(목) – 4일차	Lighting Design Workshop 09:00 – 13:00 Lighting Design Workshop 14:00 – 18:00 Lighting Design Workshop
2011. 01. 17(월) – 1일차	FLOS 본사 답사 (기업 소개 / R&D Process) 09:00 – 10:30 FLOS 본사로 이동 (Bovezza Italy) 10:30 – 12:00 FLOS 기업 소개 14:00 – 16:00 FLOS R&D PROCESS 16:30 – 18:00 밀라노로 이동	2011. 01. 21(금) – 5일차	프레젠테이션 / 평가 / 수료식 09:00 – 13:00 Lighting Design Workshop 14:00 – 18:00 최종 프레젠테이션 (개인 발표) / 평가 / 수료식
2011. 01. 18(화) – 2일차	European Lighting Design / A. Castiglioni Museum 답사 10:00 – 13:00 European Lighting Design Lighting Design Workshop 14:00 – 16:00 아킬레 카스틸리오니 Museum, Spazio Rossana, 16:00 – 18:00 10 Corso Como 답사	2011. 01. 22(토) ~ 01. 23(일)	밀라노 → 인천



이번 워크숍은 빛과 소재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실무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보다는 '디자인을 즐기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부딪히며 디자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 CREATIVE LIGHTS UP

ITALIA FLOS LIGHTING DESIGN WORKSHOP

첫 인쇄	2011년 02월 28일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실 총괄책임 : 이영선 실무책임 : 손동범 발간책임 : 김혜원 발간진행 : 송하동
발행인	김 현 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전화	031) 780-2178
홈페이지	한국디자인진흥원 <a href="http://www.kidp.or.kr">http://www.kidp.or.kr</a> 디자인DB <a href="http://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a>
편집 및 디자인	(주)소크리에이티브 <a href="http://www.socreative.co.kr">http://www.socreative.co.kr</a>

©한국디자인진흥원

이 책에 실린 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전재할 수 없습니다.

※이 책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디자인인력양성사업의  
보고서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 책에 실린 이미지 중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저작권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즉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ITALIA FLOS  
LIGHTING DESIGN WORKSHOP

비매품



9 788992 695350

ISBN 978-89-92695-35-0



이 책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디자인인력양성사업의  
보고서임을 밝혀야 합니다.